

A2003 연금 혼합2형(VL)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기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연금 혼합2형(VL)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 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위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위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삼성자산운용, 이스트프린스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펀드명칭	연금 혼합2형(VL)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44705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04.05.25
운용기간	2021.04.01 ~ 2021.06.30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제한된 주식투자로부터 부분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며, 주로 국공채, 특수채, 그리고 제한된 수량의 우량등기의 회사채에 투자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자본 이득과 이자 수익을 달성함에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은 초과수익을 위한 여러 요인들(듀레이션, 수익률선, 신용, 고평가/저평가 분석 등)을 활용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백만원,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연금 혼합2형(VL)	자산 총액 (A)	36,425	35,808	-1.69
	부채 총액 (B)	48	43	-10.58
	순자산총액 (C=A-B)	36,378	35,765	-1.68
	발행 수익증권 총수 (D)	18,594	18,082	-2.75
	기준가격 (E=C/D×1000)	1,956.42	1,977.96	1.10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행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액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주식부문] 2021년 2분기 증시는 전분기까지의 급격한 상승흐름에서 다소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표와 기업 실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COVID-19 관련 백신 접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및 일상으로의 복귀가 기대되는 상황으로 변화하면서 서비스,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5월 이후 인플레이션 속도가 둔화되고 델타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도 상승하면서 경기민감 주식들은 대체로 조정세를 겪었고 금리 인상 우려에 따라 조정을 받았던 글로벌 성장주들이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해당 포트폴리오에서는 인플레이션 예상에 따라 비중 확대한 조선, 정유, 철강 등 업종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나 5월 이후 급격한 조정을 겪으며 수익을 반납하였습니다. 정책 관련 기대감이 과도하다는 판단에서 배터리 등 신재생 관련 종목의 비중을 축소하였고, 일상 활동의 재개와 관련된 여행, 레저 등 서비스 업종과 소비재 비중은 상향하였습니다.

[채권부문] 올해 2분기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백신접종률 증가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는 시기였습니다. 1분기만 해도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코로나19 극복에 상당시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인식과 시장 분위기가 크게 전환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전환된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4%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와 더불어 물가 상승률도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금융안정 측면에서 고민거리를 안겨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6월에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국내 채권금리는 5월부터 단기구간을 중심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펀드는 듀레이션을 전반적으로 축소 운용하였으나 단기구간의 비중이 비교적 대비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는 단기구간의 비중을 축소하고 장기구간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시행하였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주식부문] 국내 증시는 상반기 지속된 상승 피로감으로 일시적인 담보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시에 긍정적인 요인은 선진국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유효하다는 점, 최근 완화조짐을 보이는 물가상승세, 양호할 것으로 보이는 2분기 국내 수출 기업실적 등입니다. 부정적 요인은 코로나19확산 이후 급격하게 유동성 환수 조치의 시행 우려입니다.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은 중앙은행의 긴축 시기를 일부 지연시킬 수 있으나 하반기 이후 실행될 미 연준 등 중앙은행의 자산매입정책 중단 및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달러강세는 국내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적시즌 이후 8-9월은 22년 시장에 대한 전망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스타일 전략 및 업종 배분보다는 종목 선택 중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2022년 성장을 둔화에 대한 우려도 일시적으로 반영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어 시장에 대한 과도한 낙관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출주, 소재 업종의 경우, 실적 피크 우려감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상승률과 더불어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업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리오프닝 관련 업종의 경우, 실적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이 될 때 급격한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비중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채권부문]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한국은행이 예고했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8월보다는 10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국가들의 델타변이 확산 추이를 보면, 국내의 경우 8월 초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7월부터 소비지출지수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백신접종률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이후에 보다 안정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곧 연내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1회에 그칠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안정감은 채권금리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국내 채권금리는 3년물 기준 1.50%, 10년물 기준 2.20% 수준에서 상단을 형성한 것으로 생각하며 올해 하반기는 이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채권금리가 등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펀드는 금리가 상승할 시 듀레이션을 확대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미 국제 3년 금리는 기준금리 2회 인상을 반영한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경우 5년 이하 구간 중심의 금리 하락이 예상됩니다. 동시에 펀드는 저평가된 채권을 발굴하여 매입함과 동시에 고평가된 채권을 매도하는 상대가치 매매를 활용하여 펀드 성과를 꾸준히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연금 혼합2형(VL)	1.10	2.54	8.75	12.19
(비교지수 대비 성과)	(-0.75)	(-0.34)	(0.86)	(1.14)
비교지수(벤치마크)	1.85	2.88	7.89	11.05

* 비교지수(벤치마크): KIS종합채권지수 X 65% + KOSPI X 25%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연금 혼합2형(VL)	12.19	11.05	9.38	13.95
(비교지수 대비 성과)	(1.14)	(-2.65)	(-5.27)	(-7.59)
비교지수(벤치마크)	11.05	13.70	14.65	21.54

* 비교지수(벤치마크): KIS종합채권지수 X 65% + KOSPI X 25%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1,010	-300	0	0	3	0	0	0	0	2	-149	565
당기	572	-25	0	0	-4	0	0	0	0	2	-145	399

3. 자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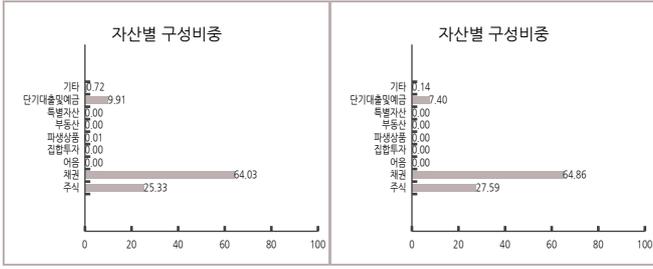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1.00)	9,881 (27.59)	23,227 (64.86)	0 (0.00)	0 (0.00)	1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649 (7.40)	50 (0.14)	35,808 (100.00)
합계	9,881	23,227	0	0	1	0	0	0	0	2,649	50	35,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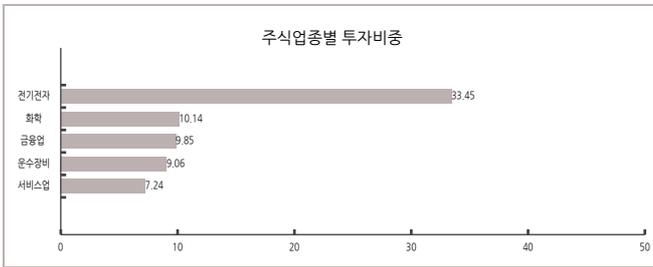
(*) : 구성비중

전기	당기
----	----



▶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단위: %)

업종명	비중	업종명	비중
1 전기전자	33.45	6 운수장고	4.68
2 화학	10.14	7 철강및금속	4.29
3 금융업	9.85	8 의약품	3.52
4 운수장비	9.06	9 유통업	2.99
5 서비스업	7.24	10 기타	14.78



※ 위 업종구분은 한국거래소의 업종구분을 따릅니다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단기상품	은대(우리은행)	7.40	6 채권	신한채20493	4.19
2 주식	삼성전자	6.35	7 채권	현대채805	4.19
3 채권	수신금융채권(은행)1980이3-12	5.60	8 채권	신한금융채권131-2	4.19
4 채권	국고01875-5103(21-2)	5.23	9 채권	케이비국민채309-3	4.18
5 채권	SK290-1	4.22	10 채권	국고채이자03600-2203	4.16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주식 (단위: 주, 백만원, %)

종목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중	발행국가	통화	업종	비고
삼성전자	28,192	2,275	6.35	대한민국	KRW	전기전자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

▶ 채권 (단위: 백만원, %)

종목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국가	통화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간	신용등급	비중
수신금융채권(은행)1980이3-12	2,000	2,006	대한민국	KRW	2019-08-12	2022-08-12		AAA	5.60
국고01875-5103(21-2)	2,000	1,872	대한민국	KRW	2021-03-10	2051-03-10		N/A	5.23
SK290-1	1,500	1,510	대한민국	KRW	2019-11-28	2022-11-28		AA+	4.22
신한채20493	1,500	1,501	대한민국	KRW	2019-10-07	2024-10-07		AA+	4.19
현대채805	1,500	1,501	대한민국	KRW	2020-06-18	2022-06-17		AAO	4.19
신한금융채권131-2	1,500	1,499	대한민국	KRW	2020-02-06	2025-02-06		AAA	4.19
케이비국민채309-3	1,500	1,495	대한민국	KRW	2020-07-29	2023-11-29		AA+	4.18
국고채이자03600-2203	1,500	1,491	대한민국	KRW	2020-04-17	2022-03-10		N/A	4.16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우리은행	2010-04-01	2,649	0.23	-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사장	42	81	2,633,760	-	-	2119000125
이대석	차장	39	81	2,633,760	-	-	2120001220
김태현	과장	38	81	2,633,760	-	-	2119000109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총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십시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20.09.17 ~ 현재	이대석
2019.01.24 ~ 현재	김태현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8	0.02	7	0.02	
판매회사	52	0.14	51	0.14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1	0.00	1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2	0.00	2	0.00	
보수합계	62	0.17	60	0.17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 중개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9	0.02	10	0.03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9	0.02	10	0.03
증권거래세	18	0.05	16	0.04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정성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 중개수수료는 제외합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6806	0.1188	0.7994
당기	0.6775	0.1052	0.7827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 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 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 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6. 투자자산매매내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단위: 백만원, %)

매수		매도		매매 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해당기간	연환산
149,928	7,132	114,230	7,027	75.07	301.09

※ 매매회전율이란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금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할 주식의 평균가격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매매 회전율이 높을 경우 매매거래수수료(0.1% 내외) 및 증권거래세(매도시 0.3%) 발생으로 실제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펀드비용이 증가합니다.

▶ 최근 3분기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2020-10-01 ~ 2020-12-31	2021-01-01 ~ 2021-03-31	2021-04-01 ~ 2021-06-30
72.89	74.28	75.07